

# 고용보험 가입자 수 늘었지만, 신규 3명 중 1명은 외국인

2월 고용보험 가입자 1522만명  
1년 전 대비해 31만2000명 증가  
고용허가 외국인 가입자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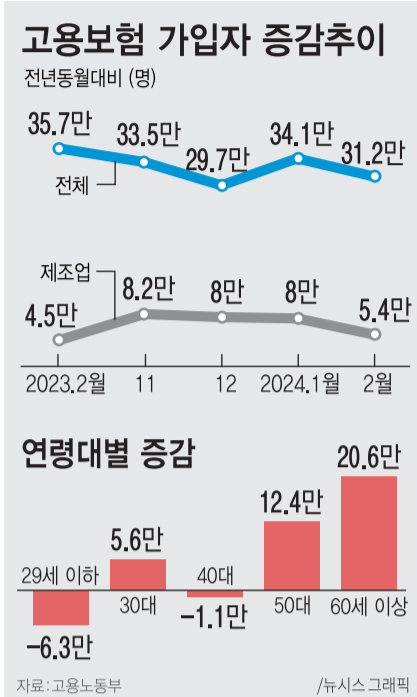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외국인 가입자 증가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7개월, 4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2000명(2.1%) 증가했다.

증가한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이 9만7000명으로 31.08%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증가는 소폭에 그친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몰려있는 제조업의 가입자는 전년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는데, 내국인 가입자만 보면 오히려 1만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 분석과장은 "지난해 1월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외국인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올랐다"며 "그 기저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증가폭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순감소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40대 가입자 역시 지난달 1만1000명 감소하면서 작년 11월 첫 감소 전환 이후 4개월째 줄었다.

20대, 40대 가입자 감소 원인으로 인구감소 영향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2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21만 8000명, 13만5000명 줄었다.

천 과장은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연령대별로 볼 때 고용률은 29세 이하나 30대, 40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취업자 감소가 인구 감소보다 적다"고 말했다. 해당 연령대 취업난이 심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50대와 60대 중장년층 가입자는 각각 12만4000명, 20만 6000명 증가했고, 30대도 5만6000명 늘었다.

다만, 채용 공고와 구직건수 모두 감소한 가운데, 채용 공고 감소폭이 더 컸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직건수는 33만3000명으로 7만9000명(-19.1%) 감소했는데, 신규 구인인원은 18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8만6000명(-31.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4000명(13.3%) 감소했다. 업종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인원은 제조업(6만1000명), 정보통신업(4만5000명), 보건복지(3000명) 순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000명(1.1%) 증가했고, 지급액은 9619억원으로 758억원(8.5%)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Z세대 5명 중 1명, 사회 가장 큰 불안 '범죄'

통계청, 세대별 사회안전·환경 의식 시니어세대 등 '신종질병' 가장 위험

이른바 Z세대는 '범죄'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았다. 반면 그 외 세대인 M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고령층)는 모두 '신종질병'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MZ세대를 중심으로 세대간 비교분석'을 11일 발표했다. Z세대는 1995~2005년생, M세대는 1980~1994년생, X세대는 1964~1979년생,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 시니어세대는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가리킨다. 관련 조사는 지난 2022년 실시돼,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전 연령층에서 여전히 컸다.

Z세대의 5명 중 1명 가까이(18.9%)는 범죄를 사회의 선순위 불안요인이라고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질병발생(17.3%), 경제적 위험(14.7%), 국가안보문제(13.0%) 순으로 조사됐다.

M세대는 신종질병(18.4%), 범죄(17.6%) 순이었다. 또 X세대는 신종질병(19.0%)과 경제적 위험(15.0%), 베이비붐세대는 신종질병(23.3%)과 안보(17.2%), 시니어세대의 경우, 신종질병(30.2%)과 안보(19.3%)를 많이 꼽은 데 반해 범죄(10.2%)와 경제적 위험(8.9%) 비중은 낮았다.

환경문제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전(全) 세대에서 '미세먼지(평균 64.6%)'와 '기후변화(45.9%)'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한편, M세대(47.8%)와 X세대(47.7%)에서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을 꼽은 비중이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다음 베이비붐세대(55.4%), X세대(53.4%) 순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이 높아 일명 '엠제코 세대(MZ+ECO)'로도 불린다. 그러나 실제 환경오염방지 노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실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에서 미혼 비중이 큰 데다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베이비붐세대(91.8%)와 시니어세대(90.7%)가 높았다. Z세대(77.3%)와 M세대(81.9%)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역시 베이비붐세대(75.8%)와 시니어세대(73.4%)가 높은 반면, Z세대(52.5%)와 M세대(52.0%)에서 낮았다.

박상영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본 연구가 우리사회 곳곳에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안전과 환경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러한 결과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3월25일 발간)에 게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국내 동물용 의약품 업계 동남아 시장 개척 추진

국내 동물용 의약품 업계의 동남아 시장 개척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 동물용 의약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각국 기업들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 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리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 세계 500여개 업체의 참가가 예상된다.

박람회 운영기간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해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섭외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 "농업 위기, 변화·혁신 절실"

농·축협 위상제고 사업 활성화 박차 미래경영·조직문화 혁신 등 당부 "회장, 후원자·보조자 역할 강조"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취임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한국 농협의 지난 6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등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난 60여년간 농협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격려했다. "현재 농협을 바라보는 국민과 농업인들 시각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협의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주역이고,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자, 보조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고용24' 온라인 서비스 100여종 이용

신청·신고·조회, 디지털 고용 플랫폼

이달 시범운영에 들어간 '고용24'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100여종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11일 오후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고용24'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기간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름(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본격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고용 플랫폼 서비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직자나 구인기업 모두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24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 재학생

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24 정식 오픈 전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 '각종 고용정책·사업 평가',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별·기업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